

“차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 찍어 줬다

2000년 정상회담 ‘영접 車內 밀담’美서 도·감청
CIA서 前 駐월남공사 이대용 씨에 생전 넘겨줘

2000년 남북정상회담 김정일-김대중 車內 밀담 내용

김 위원장: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소?

김 대통령: 호남 출신 한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합니다.

김 위원장: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

김 대통령: 그는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면에서 훨씬 밀리는데요?

김 위원장: 그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성분도 호남.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 충분히 밀릴 수 있소. 선거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차기 후계자로 노무현을 낙점했다는 극비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확보해 우리 측에 전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우리 측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탔고, 이후 45분간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단 둘이 밀담을 나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처럼 24년 전 김대중-김정일의 밀담에 관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노무현은 5공 청문회 스타로 대중적 인지도는 쌓았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할 때였다. 그러나 2년 뒤 전자계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경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00년 6월15일 평양의 순안비행장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 속 대화의 도감청에 성공한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핵심 내용을 우리 정보당국이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김대중-김정일 차 안 밀담에 관해선 월간조선에 비롯한 언론들이 수차례에 걸쳐 추정 보도했지만,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내용을 근거로 노무현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폭로되기는 처음이다. 북측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김대중의 차 안 밀담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대용(2017년 사망) 전 주월남한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를 통해 우리 정부 관

계자 3명에게 전달했다. 3명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급 인사다.

미국은 베트남 당시 5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북한으로 귀순하라는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송환된 이 전 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해 그에게 회담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CIA가 입수해 우리 측에 건넨 차 안 밀담은 김정일이 동승한 김대중에게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소?”라고 물으면서 시작된다. 남한의 대선 구도에 관해 묻는데도 일국의 정부 수반인 김대중은 “호남 출신 한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직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시 김정일이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며 차기 한국 대선 구도의 윤곽을 좁혀 나갔다.

이 대목에서 김대중은 곧바로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거명하자 김대중은 “그(노무현)는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면에서 훨씬 밀립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로 토를 달았다.

곧이어 김정일은 “그(노무현)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호남”이라며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 충분히 밀릴 수 있소”라고 김대중에게 말했다. 월간조선의 북한 특파원 이대용은 “김정일이 이북 말로 표현했거나 우리 쪽을 염두에 두고 ‘월장’으로 발음했을 수 있으며, 본지가 입수한 대화 원문에선 ‘월장’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3면에 계속
허경기자 kh@skypedaily.com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216편이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승객 175명 중 173명은 한국인이고, 2명은 태국인(여성)으로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는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는 조류 충돌 등 기상악화가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27명이며,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탑승 181명 중 2명만 살아남아

방콕발 제주항공 무안 착륙 중 새 때 충돌... 동체착륙 중 참사
구조 2명 남여 승무원... 꼬리만 남기고 동체는 형체도 없어

29일 오전 9시15분,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생존자는 오후 2시50분 현재 2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항공기는 활주로에 접근해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복행(Go Around)을 거쳐 다시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활주로 끝단 구조물과 충돌하며 기체가 전소됐다.

제보 영상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착륙 전 항공기 우측 엔진에서 폭발과 연기가 발생했고,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동체로 활주로에 접촉한 채 질주했다. 항공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끝단의 외벽과 충돌했으며, 충돌 직후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 후 여객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꼬리 부분만 일부 남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한 뒤 생존자 구조 및 사망자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후 4시18분 기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7명으로 확인됐으며, 생존자는 2명으로 목포의료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탑승자는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사고 현장에서 추가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오후 12시50분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을 열어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는 랜딩기어 고장이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장은 항공기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은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측 엔진 결합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항공기의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해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소방청

과 경찰청은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탑승객 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후 관계자 회의를 거쳐 오후 2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족 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모든 항공편이 결항된 상태이며, 공항과 인근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도현·이유경기자 jebo@skypedaily.com

드디어, 총선백서가 나왔다.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가 쓴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이 책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패한 원인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진영이 현 상태로 어영부영 가면 2년 뒤 지방선거 완패, 3년 뒤 대선에서 완패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김정은체제·적화통일로 가는 대문이 열린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윤석열정부·국민의힘·애국단체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공산화를 막고 전세를 역전할 방법이 있다. 이 책이 그 구체적인 재집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희천

186쪽 (신국판변형) | 정가 16,000원
도서출판 대추나무
문의 010-8799-1500

일찍이 이 책이 나왔더라면 자유민주진영이 현재처럼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때늦은 탄식)의 아쉬움이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